

진안군수, '보통재 도로 개량'

익산지방국관리청 방문 도로 안전성 고려 최우선 반영 촉구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26호선의 사고다발 구간(진안 부귀 ~ 완주 소양) '보통재 도로(터널)개량 사업 일괄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보통재 도로(터널)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알리며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제5차 국도·국

지도 5개년 계획(21~25년) 반영을 위한 KDI 일괄예타 재정사업 심의 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으로 전북 권역 정책성평가 발표 및 심의를 통해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전 군수는 지난 9일 또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도로의 안전성을 감안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소태정 고갯길 터널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그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재정사업 평가 심의 시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은 객관적인 지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의 관심도, 도로의 위험도 등 '정책성 평가'에 주력해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을 하며 자료작성준비(PPT) 자료, 드론촬영영상, 보도자료영상, 추후서명서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획득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안전한 환경·양질의 프로그램 국가가 인정

무주군은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다.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참여기록 확인서 발급 & 포트폴리오 작성·관리 가능)하며 해당 수련활동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췄다는 것을 인증해 준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이 인증을 받은 활동은 ▲청소년리더십 프로그램인 '청소년 비전스케치'와 ▲곤충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인 '나비와 사랑뿔(에) 빠진 풍뎉'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6년 11월에도 인증을 받아 4년간 운영을 해왔으며 무주군은 유효기간 만료 후 2021년 5월에 신규 인증을 신청해 두 개 프로그램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권태영 소장은 "한 해 평균 4만여 명 정도가 다녀가는 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서는 전문 청소년지도사 2명이 상주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생태모험공원 조성 시동

새로운 관광지 개발 취지

체류형 종합 관광지로

무주군이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 가족형 레저테마파크 조성을 앞두고 있어 무주다움을 살린 대표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무주군은 총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376-2번지 일원에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반딧불축제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 발굴 취지다.

앞서, 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3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38억 원(국비 19억 원 포함)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등을 마치면 사업 착수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갖췄다.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체험교육관을 비롯해 반딧불이 생태습지,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생태퀴즈미로장원 등의 생태체험시설을 갖춘다.

또 로프모험체험장을 비롯한 판라이딩시설, 어린이자연모험 놀이터 등 모험레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녹지 및 휴게공간과 방문자센터, 주차장, 입구광장 등 공공편의시설도 마련한다.

반딧불축제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

계 교류하고 발전하는 상생형 관광모델이 구축될 전망으로 새로운 힐링 및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체류를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또 하나의 무주 대표관광지 조성으로 향후 생태모험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 등이 제공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흥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생태체험과 모험레포츠가 결합된 가족형 레저테마파크(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새로운 체험 및 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각광받는 무주의 미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은 오는 12일부터 20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간병인이나 가족이 직접 전담하는 대신 전문 간호 인력들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위해 진안군은 대도시 의료기관 근무에 편중된 간호사 채용 10명을 비롯해 총 22명을 병동에 배치할 수 있게 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를 실시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됐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해 의사·간호사 등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고, 환자 간호와 쾌적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원 진료부와 관리부 등 전 직원이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료원 운영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전문 간호를 전담하게 돼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경제적 부담은 80%가량 줄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

무주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1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지능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18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 무주군은 구천동 공공하수처리장(8,500㎡/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모니터링), 스마트 제어·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하수처리공정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은 물론, 휴먼에너지 제로화 에너지 절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립 박봉열 팀장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도 사업 분야 중 하나"라며 "40개 지자체 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화 적합성과 침수피해 이력, 악취현황,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반영이 된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